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NIGO 콜라보레이션 '원바이펜폴즈''

## 펜폴즈, 원바이 펜폴즈 GSM

Penfolds, One by Penfolds GSM

지역	프랑스 > 밴드 프랑스		
포도품종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드르		
알코올	1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8-20℃		
테이스팅 노트	생기 넘치는 야생 과일, 붉은 과일의 아로마가 풍부합니다. 베이킹 향신료, 화이트 페퍼, 균형 잡힌 오크에서 파생된 바닐라 크림 브뤼레 뉘앙스가 동반됩니다. 달콤하고 넉넉한 라즈베리와 체리류의 레드 프루츠와 무화과를 한 입 베어물었을 때의 과즙과 껍질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오크 사용은 과일 플레이버를 지지하며 약간의 견과류 힌트를 더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피니쉬와 풍부하고 신선한 과즙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페어링 TIP	붉은육류/흰육류/훈제, 염장음식/밀가루음식(피자, 파스타외)		



### 제품설명



'One By Penfolds'는 '하나됨(Oneness)'의 개념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르고 독특함을 포용하면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휴먼메이드의 설립자 NIGO 와의 파트너십으로 디자인된 제품을 통해 새로운 룩으로 표현됩니다.

###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았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